

“여행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 찾아야”

어제 JDC특특튀는 교육특강 손미나 여행작가 초청 강연 전세계 여행 이야기 풀어내 “인간의 가능성 무한 교훈”



손미나 여행작가가 3일 서귀포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JDC 특특튀는 교육특강에서 강연을 하고 이상국기자

“여행을 통해 익숙한 곳을 벗어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을 통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나운서에서 여행작가로 변신한 손미나가 3일 제주에서 ‘여행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주제로 그동안 전세계를 누비며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 놓았다.

한라일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교육청이 후원하는 2019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특특튀는 교육특강이 이날 오전 서귀포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손 작가는 대학 진학 후 교환학생으

로 호주로 떠났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 놓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얻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 설명했다.

손 작가는 “호주 교환학생 당시 낯선 나라에 홀로 지내니 부모님 보호를 받으며 살았을 때 미처 몰랐던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

기 시작한 것인데, 자유는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쓰일 때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호주에서 1년간의 교환학생 생활이 마무리될 무렵 스페인 어학연수를 준비했다”며 “당시 한국사회는 여학생이 해외 유학을 가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이 남아 있던 시기

였지만, 호주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돌연 취소하고 스페인으로 향하는 티켓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도착한 열정의 땅 스페인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났다”며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생각보다 호기심이 많고 소통을 즐기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여행이 준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편견의 벽을 부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손 작가는 “세상 모든 가능성과 씨앗을 죽이는 것은 두려움인데 살아가다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인간성을 걷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며 “남들 얘기만 듣고 따라가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자신이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데트몰트국립음대 등과의 교류협약 체결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도교육청 제공

함덕고 음악과, 해외 진학 길 열렸다

독일 최초 국립음대 협약 데트몰트예비음대반 개설 대학 교수진 파견해 지도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학생들의 진학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이 독일, 러시아 음악교육기관과 잇따라 교류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진학의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독일 최초의 국립음대인 ‘데트몰트국립음대’와 전문 음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데트몰트국립음대는 유럽 최고의 음악대학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협약으로 함덕고 음악과엔 데트몰트예비음대반이 개설된다. 데트몰트국립음대는 대학 방학 기간인 매년 3월 2주간 교수진을 함덕고로 파견해 음악이론과 실기를 지도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입시전형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함덕고에 우선 제공하고, 교수진이 선정한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독일어 어학 점검과 시험

도 진행한다.

협약식은 독일 현지 시각으로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데트몰트국립음대 쿠클홀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 7일부터 13일까지 데트몰트를 찾는다.

제주도교육청은 세계 7대 콘서바토리(conservatory, 예술학교)인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국립음악원’과의 교류협약도 예고하고 있다.

두 기관의 협약은 내년 4월에 체결될 예정이며, 이 기간 글린카국립음악원 총장과 부총장 등이 제주를 방문해 함덕고 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성악, 첼로 등을 직접 수업하는 마스터클래스도 연다.

이석문 교육감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통틀어도 두 명뿐 음악고 등교육기관과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한 교육청은 제주가 유일하다”며 “독일은 관악, 러시아는 현악이 우수하다. 이 점을 반영해 함덕고 학생들이 전공에 맞게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 확인될까

도교육청, 내년 4월까지 특수교육 발전방안 연구 현안·센터 운영방안 등 검토

제주지역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제주형 특수교육 연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라

면 제주형 특수교육 발전 방안 연구’가 지난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업비 4000여 만원을 들여 대구교육대학교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기간은 내년 4월 24일까지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내 특수교육 실태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특수교육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수요와 향후 전망을 파악하기로 했다.

제주 특수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연구 용역에선 장애학생 취업률 제고, 특수학교 방과후교육 개선 방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이 다뤄질 거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은 도내 장애인단체와 제주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제주도의회가 이석문 교

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특수교육원이 설립되면 다양한 체험 시설을 설치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통합체함을 할 수 있어 통합사회로 나아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해 현재 운영 중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개선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수교육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관련 용역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황금·레드향 대체할 신제품 나온다

만감류 2품종 출원 계획

제주에서 새롭게 개발된 갈금 2품종이 품종보호출원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당도가 높은 제주형 만감류 2품종을 12월과 내년 3월에 각각 품종보호출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먼저 이달에 출원되는 ‘제교Ci015’는 황금

향에 세토미 꽃가루를 교배해 육성한 품종으로 12월에 수확되고, 과실 모양은 납작하다. 당도 14브릭스·산도 1% 이하로 과즙이 많고 식감이 좋아 당도가 12브릭스인 황금향을 대체할 품종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배꼽이 형성되기 쉬워 적과에 주의해야 한다.

내년 3월에 출원되는 ‘제교Ci016’은 황금향과 레드향의 꽃가루를 교

배·육성한 품종으로 과실모양은 황금향과 비슷한 구형이다. 또 꼭지나 배꼽이 없고, 수확기는 1월이며, 당도 15브릭스 이상·산 함량 1% 이하로 레드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원에 앞서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갈금 교잡육종 우수계통 실증농가와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품종보호출원이 되면 3~4년 후에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제주-서귀포의료원 희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2019년 지역 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 간의 희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귀포의료원이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의료원과 함께 A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운영 평가는 점수에 따라 80점 이상 A등급, 70점 이상 B등급, 60점 이상

C등급, 60점 미만 D등급 등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서귀포의료원은 일반진료서비스 진료과정(항생제 및 주사제 사용)을 포함해 분야별 진료결과, 응급의료서비스, 환자만족도(82.4→83.3점), 병원별 특화서비스(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가 개선돼 A등급으로 분류됐다. 서귀포의료원 지난해 B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개선된 점을 토대로 등급을 한단계 위로 끌어올렸다. A등급으로 분류된 서귀포의료원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다.

반면 제주의료원은 올해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맴돌았다. 제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C등급을 받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불에 타지않는

준불연 스티로폼 쉘보드

제주총판 그랜드 OPEN

시형성적서 보유
ISO 9001, ISO 14001 특허증 보유

쉘보드의 특징

준불연 제품, 열경화성제품, 열전도율 0.034, 적은흡수율, 우수한 단열성, 뛰어난 가성비, 효율적인 보온성능, 환경친화성

기존 보온비드법 시공과 동일 600*1200으로 시공 간편

흑연 EPS보드 연소시험

쉘보드(SHIELDBOARD)와 S보드 연소시험

쉘보드 제주총판 우영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63
전화 739-8118 팩스 739-9228, 010-6337-3047 메일주소 : wy9724@naver.com